우치동물원 잔혹사

비좁은 우리에 바닥은 콘크리트
해양동물 수돗물 사육 만성 눈병
폐사동물 속출해도 예산 타령만
관람객들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우치동물원 물범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린 채 관람객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범이 사는 수조는 민물로 채워져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들이 생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조건 때문에 '동물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26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연면적 12만1302㎡ 크기의 동물원(1992년 개원)은 호랑이사·해양동물사·원숭이사·조류사·큰물새사 등 19곳 우리(137종·632마리)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서식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돼 동물 생태 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원숭이사·파충류사·표범사와 같은 사육장은 청소와 관리의 편리성 등을 이유로 바닥에는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발라져 있다.

펭귄·남아메리카물개·잔점박이물범이 사는 해양동물사에는 수조의 물이 바닷물이 아닌 민물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안구염증이 발병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사자(3마리)와 호랑이(3마리)는 각각 내부면적 23.1㎡ 크기의 비좁은 우리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원래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한 동물원이 동물들에게 고통과 질병발생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환경 탓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자연사를 포함해 3년간 폐사된 동물은 모두 82마리(64종). 2007년 26마리(19종), 2008년에는 27마리(20종), 2009년에는 29마리(25종)가 폐사되는 등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같은 시설여건을 접한 관람객들은 동물원의 열악한 사육장 환경 실태를 비난하고 있다.

자신을 광주에 사는 20대 남학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인터넷 다음 토론 카페 아고라에 '우치동물원의 충격적인 광경'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뒤 환경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네티즌은 글에서 "동물원에 다녀온 뒤 기분이 안 좋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말문이 막혔다"며 "곰은 몸이 바짝 말라 가려운 부위를 긁고 있었고, 물개 우리에서는 탁한 물 안에서 물개가 헤엄쳐 다녔다. 동물들이 볼품 없고 바짝 말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예전부터 지적돼온 일인데, 이는 광주의 수치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동물 학대 현장"이라는 등의 답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우리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꽃가루가 날리는 등)날씨 여건 때문에 물이 탁해 보이는 것뿐"이라며 "사육장 환경을 개선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우치동물원 관람객 수는 24만2338명으로 파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영아 유기·살해… 비정한 모정

광주서 2명 검거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20대 산모와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6일 산모 이모(여·26)씨를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밤 9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A산부인과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출산 직후 A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집에서 아이 옷을 챙겨오겠다"고 말한 뒤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3년과 2008년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자 2명의 아이를 낳은 뒤 입양시켰거나 광주의 한 보호센터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김모(여·36)씨가 서부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12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들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는 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량식품 식별 이렇게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26일 운암1동 광림초등학교 앞 한 문구점에서 학생들에게 식품 유통기한 확인과 불량식품 식별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취객 상대 '퍽치기' 강도

심야시간대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5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 여인숙 앞 도로에서 김모(68)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폭행을 당한 뒤 현금과 담배 1보루 등 15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겼다.

이 괴한은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김씨의 얼굴을 다짜고짜 폭행해 넘어뜨리고 지갑을 챙겨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수사 열심히 하면 비리 경찰?"

깐깐해진 초과근무수당 지급 형사들 뾰로통

"초과근무수당이요? 열심히 일하고도 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되레 비위 경찰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실태 조사 이후 초과근무수당 결제 시스템이 깐깐해지면서 각 경찰서마다 형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6일 광주 각 경찰서에 따르면 야근 이 잦은 형사과 직원 등은 지문인식시스템 또는 서류작성을 통해 인정된 초과근무 시간에 한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초과수당은 경사급 기준 한 달 평균 70만~100만원.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 3월 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대한 실태 조사 이후 30만~50만원선으로 대폭 줄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초과근무 명령서 승인절차를 기존 과장 승인에서 팀장, 과장으로 두 단계로 확대시킨데다, 정기적으로 초과근무자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분석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초과근무수당 수령 문제로 최근 서장이 교체된 광주동부경찰서는 더 뒤숭숭하다. 타 경찰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초과수당을 받았지만 감사에 반발한 경찰서만 '후환'을 겪었다는 것.

한 경찰관은 "강화된 초과수당 기준 때문에 '낮에만 일하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며 "우리는 '비리 경찰'이 아니다"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방댐 업체 선정 수뢰 전남도 공무원 실형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사방댐 건설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남도 6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돈을 준 건설업자 장모(42)씨와 수뢰 사실을 빌미로 김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다른 건설업자 설모(54), 박모(54)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09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나주와 광양 등 사방댐 공사 3건을 하도급받게 해준 데 대한 대가로 장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청업자였던 설씨 등 2명은 이를 빌미로 김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택시비 찾아 주겠다는데…" 못믿어 폭행

쌍나팔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을 벌인 취객이 경찰서행.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7)씨는 이날 새벽 2시15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모 은행 앞에서 택시비 28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김모(41)씨와 말싸움 도중 세게 밀치며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현금이 없던 박씨는 집 근처 자동인출기로 가던 중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경찰에서 박씨는 "돈을 찾아오겠다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따라와서 화가 났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축제장 차속 귀중품 조심

차문 열고 6천만원 훔친 일당 검거

장흥경찰은 26일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훔친 조모(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진모(6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5년 5월 1일 오후 1시30분께 장흥군 장흥읍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장흥군민의날 행사장에 주차된 이모(65)씨의 승용차에서 현금 1570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고흥·화순·보성·강진 등 축제행사장에서 현금 6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대상 물색·바람잡이 등 서로 역할 분담한 뒤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도곡온천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 쌍촌동 상가 · 목욕탕 · 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1억
- 교회건물. 구시청(이마트)옆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은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대인동 소방도로코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공시지가 2억8천 다용도 사용 4억6천만원
-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감정15억4천 임대된곳은 전세5천만원 월5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내방동 484평 대출7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다가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급매8억3천
- 대인동 계림시장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대인동 버스도로식당 대지63㎡ 공시지가에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8백
- 사찰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댐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73평 건평131평 농가시설 감정가 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농가시설	· 나주시 금천면 과수원 토지 1,530평 감정가1억8천 최저가1억3천만
단독주택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감정가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전원주택	·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근린주택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31평 건평62평 감정가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 서구 화정동 3층 대지63평 건평105평 감정가 3억 2천만 최저가 2억 2천만
다가구	· 서구 풍암동 3층다가구 대지 61평 건평 112평 감정가 3억 3천만 최저가 2억 3천만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및 임대.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2,486.5㎡(752평). 공장1,120㎡ (338평).매매가 11억3,000만원. 임대시 보증금 5,000만원 월500만원.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자연녹지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전.2,590㎡(783평). 3.3㎡당 98만원.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4m.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자연녹지. 현재 임야.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보증금 : 10억원 월세 : 4,30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73억원
☆.보증금 1억 월세 2,400만원(부가세별도) 오피스텔 매매가 : 32억원
☆.보증금 : 8억2천 월세 : 1,330만원(부가세별도) 매매가 : 28억원
☆.보증금 : 1억1천 월세 : 350만 매매가 : 6억7천

♣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광산구 오운동 대지4,926㎡ 건물 : 66㎡ 매매가격 : 2억3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담양군 수북면 궁산리 전원주택단지 내 대지654㎡ 매매가 : 1억2천8백만원

♣ 대지.전.답.임야
☆.치평동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압촌동 정착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9천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답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답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 무인모텔
☆.광산구 우산동 무인모텔 대183평 건500평 객실 32개 매매가 15억5천만원,

062-374-5945
010-3162-4989